

# 2025년 6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6/1	[뉴스오늘] 3천 표로 승패 갈렸던 서울 초접전지들...이번에는? [뉴스리뷰] 아시아 곳곳 코로나 재유행...국내 의료현장 준비는	
최미연	6/8	[대전2025] 이재명 대통령, 49.42%로 당선...오늘 국회서 취임선서	
안지연	6/15	[대전2025] 대통령실, 새 주인 맞이 준비...다시 올라간 봉황기 <뉴스오늘> '강제 삭발' 등 수년간 괴롭힘... "분리조치도 안해" 분통	
임윤주	6/22	<뉴스오늘> 장마철 맨홀 사고 우려.. 설치 더딘 추락 방지시설 검토 [뉴스투데이] 통일부 "천단 살포 '규율 가능'...항공안전법 개정도	
안지연	6/29	[뉴스잇] 악몽 될 뻔한 지하철 5호선 방화...참사 막아낸 시민들 <뉴스투데이> '클릭' 안했는데 '쿠팡'으로...방통위 '납치광고' 조사 착수 <뉴스13> "국민 노후준비 수준 70점...경제수준 따라 달라"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6/1(일)	임윤주	다음은 OTT와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600> 살펴보겠습니다. ENA에서 방영한 한 드라마의 첫 화 시청률은 1%대에 그쳤지만, 넷플릭스에 공개된 뒤에는 주간 순위 글로벌 톱 10, 비영어 시리즈 부문 2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업계는 물론 영화관까지 맥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보도는 현재 국내 OTT 대비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영력에 대해 전했습니다. 과거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업로드되면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현상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소비자들의 미디어 콘텐츠	OTT, 특히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짚어주는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최근 오징어게임과 케이팝 데몬헌터스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국 관련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수출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이러한 실패 현상은 우리나라 문화계 인사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방법 제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목소리를 담아보도록 기사를 준비하겠습니다.

		<p>소비 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국내 콘텐츠 시장이 종속될 수 있고, 국내 OTT 업계가 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문화·정치계의 현재 정책이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 대해 전했다면 단순 현황 전달을 넘어 보다 의미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2025 6/8(일)	최미연	<p>연합뉴스TV는 사건 발생부터 범인의 구속까지 전 과정을 집중 보도하며,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 문제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열차 내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건 발생부터 용의자 체포, 법원의 구속 결정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보도했습니다. 경찰, 법원, 소방당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보도의 기본적 책무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위 설명을 넘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 열차 내 위급 상황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대응 인력의 훈련 체계 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됐다면 더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p>	<p>별도 리포트로 추후에 다뤄 주도록 하겠습니다.</p>
2025 6/15(일)	안지연	<p>장마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시설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뉴스오늘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 위험에 주목했습니다. 폭우로 하수도에 빗물이 가득 차면 일시적으로 솟은 수압에 맨홀 뚜껑이 벗겨진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사</p>	<p>참고하겠습니다.</p>

		<p>망 사고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맨홀 뚜껑 아래 최대 500kg 무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전국 약 350만개 맨홀 중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된 건 30만개 정도로 설치는 더딘 상황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장마철 맨홀 사고 위험을 강조하며, 안전 대책의 실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설계기준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을 짚었는데, 사고 사례와 수치도 함께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설치 격차나 지연 사유 등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 대응 방안이나 지자체의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2025 6/22(일)	임윤주	<p>다음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보도한 &lt;라이브투데이&gt;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자리한 수원구치소는 바로 담장 너머로 대단지 아파트가 접해있고,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도 있습니다. 반경 10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도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자리한 교정시설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본 보도가 지역 주민 외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해당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공론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등 정</p>	<p>후속 보도로 검토하겠습니다.</p>

		<p>도를 전해주거나, 현재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 덧붙여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 정도를 넘어 보도에서 언급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도 말미에 언급한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기관과 주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2025 6/29(일)	안지연	<p>마약 범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구분이 어려운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액상형 마약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일반 전자담배 기기로 투약해 거부감이 적고 주변에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점, 어디서든 투약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마약이 전자담배 형태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변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도에 포함되었다면 문제의 실질적 위험성을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층 사이에서 액상형 마약이 손쉽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실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더해졌다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파악과 경각심을 높이</p>	<p>향후 관련 취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p>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6. 0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0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줍니다. 이제 진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주요 후보의 정책과 언행은 물론 지역 민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구 가운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초접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로, 광진, 중구, 동대문, 마포 5곳으로, 그 가운데 종로와 광진은 불과 3천여 표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들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특히 광진의 경우 지난 14대 대선부터 직전 20대까지, 대통령 당선인을 맞춰 '민심의 풍향계'로 불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이지만, 심판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46%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9%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의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지역답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대선 모두 서울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서울 초접전지 5곳의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비단 주요 후보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로서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연합뉴스TV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인 수치에 담지 못한 민심도 항상 궁금해하는데요. 물론 연합뉴스TV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대담도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민심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본 보도를 포함한 '현장민심은'이라는 보도 시리즈는 매우 훌륭한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보도는 시민 직접 인터뷰 뿐 아니라,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여주고, 해당 지역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도 전해 더욱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5월 11~17일 PCR 검사를 통해 양성이 확인된 확진율은 13.8%,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5월 초 PCR 양성률은 16.2%로 한 달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도 최근 주간 확진자 수가 1만 4,200 명으로 일주일 사이 28%가량 늘었고, 태국의 주간 확진자는 11주 연속 증가하며 3만

3천 명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산세를 당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평가입니다. 실제, 지난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6%, 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현장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병상은 충분하지만, 환자를 진료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본 보도는 조기 대선으로 모든 이목이 정치권으로 쏠린 가운데,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현재 국내 확산세가 크지 않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주변 국가들의 확산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OTT와 관련하여 보도한 <출발600> 살펴보겠습니다. ENA에서 방영한 한 드라마의 첫 화 시청률은 1%대에 그쳤지만, 넷플릭스에 공개된 뒤에는 주간 순위 글로벌 톱 10, 비영어 시리즈 부문 2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22년 국내 토종 OTT 웨이브 오리지널로 나온 한 드라마는, 방영 당시에도 호평이었지만, 넷플릭스 입성 이후 6주 연속 글로벌 톱 10에 포함됐습니다. 후속작 클래스 2는 아예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옮겼습니다. 이처럼 외면받았던 콘텐츠들이 넷플릭스에 입성해 재조명 받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서 생긴 변화인데,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넷플릭스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콘텐츠 시장이 종속될 수 있다는 단점이 따라붙습니다.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업계는 물론 영화관까지 맥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해법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보도는 현재 국내 OTT 대비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전했습니다. 과거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업로드되면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현황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본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소비자들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방식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국내 콘텐츠 시장이 종속될 수 있고, 국내 OTT 업계가 맥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문화·정치계의 현재 정책이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에 대해 전했다면 단순 현황 전달을 넘어 보다 의미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헬스장 휴·폐업 사전통지 의무화에 대해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에 등록 이후,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도 되지 않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은 1만 건이 넘고, 이 중 90% 이상이 환불 거부나 위약금 갈등 같은 계약 해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헬스장이 한 달 이상 휴업하거나 아예 폐업할 경우, 적어도 14일 전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또 이번 약관 개정으로 퍼스널 트레이닝, PT 이용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됐고, 헬스장 이용을 개인 사정으로 미루는 경우 최대 연기 가능 기간을 사전에 정해두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떡튀 헬스장’ 문제는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문제이며,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만큼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소비자들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전할 때에는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함께 소개한다면 해당 개정안의 의무화가 더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개정안에 대해 위반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떡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나, 약어이자 속어로 기사 헤드라인 작성 시에는 보다 신중히 고려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6. 0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0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제21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 속에 출범한 제21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권위로 인해 치러진 조기 선거였으며,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제헌절에 ‘임명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연설을 통해 내란 극복, 민생 회복, 재난 예방, 한반도 평화, 포용 사회 구현 등 다섯 가지 국정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

통령실의 봉황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복귀 방침에 따라 석 달 내 재이전도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담 경호를 시작했고, 군 통수권은 선관위 당선인 결정 시각인 오전 6시 21분을 기준으로 이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총리와 비서실장 등 인선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국정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취임 선서는 국회에서 진행됐고,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외부 인사를 대규모로 초청하는 대신, 간략한 선서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취임 선서 후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와의 환담도 진행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당선 발표, 대통령실 변화, 첫 공식 일정까지의 흐름을 빠르고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라는 이례적 상황과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 점, 봉황기 재계양과 현충원 참배 등 상징적 장면들을 적절히 배치하며 시청자에게 새로운 정부 출범의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구성력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들은 새 정부 출범의 형식적 측면을 충실히 따라가되, 새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과 행정부 전환의 현실적 과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기대와 우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해석과 공론화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 교체라는 국가적 전환기에서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시선을 한 발 앞서 구조적으로 안내하는 비판적 시각이 요구됩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투표용지 반출 사태와 대리투표 등 부실 관리의 오점도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4.74%로 집계돼, 역대 대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이 56.5%로 최고, 대구는 25.6%로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0대 대선보다는 낮지만 19대보다는 높으며, 최근 선거 중에서는 2022년 대선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높은 참여 속에 마무리됐지만, 투표용지 반출과 대리투표 등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재발 방안을 촉구하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강하게 책임을 물으며 법 개정과 위원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우려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씨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본투표 당일 질서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사전투표의 높은 참여율, 정치권의 반응, 실제 부정행위 사례를 조명하며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문제 제기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편적인 사건 중심 보도에 그칠 경우, 유권자들에게 선거관리 부실, 제도적 취약성, 사무원 선발 체계의 허술함 등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합뉴스TV의 보도는 제도 전반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통해 선거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일은 민주사회에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리박스쿨'이 대선과 관련된 댓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교육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 간의 연관성 여부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 대표는 서울교대 측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들이 제안한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적 공간인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형법상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리박스쿨에서 댓글 팀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효숙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리박스쿨 사건은 교육이 가져야 할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안이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큼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며 균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교육 공간이 정치 세력의 영향력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제도의 취약한 지점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보도에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건 발생부터 범인의 구속까지 전 과정을 집중 보도하며, 공공 장소에서의 안전 문제와 이번 사건이 갖는 사회적 함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열차 내부에서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객실에는 약 400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터널을 통해 신속히 대피했고, 다행히 사망자 없이 2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약 한 시간 뒤, 여의나루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화범 원씨에 대한 조사 경과, 그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공론화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이며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원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심리 분석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화사건은 공공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정면으로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히 열차라는 공공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방화는 이전의 대구지하철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사건 발생부터 용의자 체포, 법원의 구속 결정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보도했습니다. 경찰, 법원, 소방당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며 보도의 기본적 책무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위 설명을 넘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보안 시스템 강화, 열차 내 위급 상황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대응 인력의 훈련 체계 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됐다면 더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6. 15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0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래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의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학교폭력 센터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학생에 대해 학교의 부실한 대응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부턴 지난 5월까지 4년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강제 사발 등의 가혹행위 및 1천만원 상당의 금품도 갈취당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피해 학생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지난달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 놓으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학교폭력 센터에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상태며, 학교폭력대처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는 교육당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또래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는데요,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학교의 미흡한 대처가 사안을 악화시킨 원인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문제 제기는 부족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학교 측의 입장, 그리고 괴롭힘이 반복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학교폭력 전문가나 교육 관계자의 분석이 더해졌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데 더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마철이면 인명 피해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사람이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

도 발생했는데요, 장마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배수시설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8일, 뉴스오늘의 보도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맨홀 추락 사고 위험에 주목했습니다. 폭우로 하수도에 빗물이 가득 차면 일시적으로 솟은 수압에 맨홀 뚜껑이 벗겨진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22년에 발생한 사망 사고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맨홀 뚜껑 아래 최대 500kg 무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전국 약 350만 개 맨홀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건 30만개 정도로 설치는 더딘 상황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장마철 맨홀 사고 위험을 강조하며, 안전 대책의 실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설계기준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을 짚었는데요, 사고 사례와 수치도 함께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설치 격차나 지연 사유 등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 대응 방안이나 지자체의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당첨만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로또청약’ 현상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 제도를 노린 위장 전입이나 투기성 신청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동탄의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 300만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과 군수, 구청장 재량으로 맡기는데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합니다. 보도에서는 청약을 위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고 전했으며, 지역을 한정해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무순위 청약 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취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청 자격 제한과 실거주 확인 강화 방침을 전문가 의견을 함께 전달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나 실제 청약 수요자의 입장은 다루지 않아 제도 변화에 대한 실제 반응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거주 여부 확인이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포함해 정책의 실효성

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안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이 늦게 알려지거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는데요, 지난 1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해킹 사실을 뒤늦게 알린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예스24는 홈페이지 공격을 받았으나 서비스 점검 중이라고 공지했으나 이후 해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스24 서버에는 랜섬웨어가 침투했으며 해커가 암호화된 회원 정보 등을 아직 해독하지 못했으며,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회원들의 각종 불편에 대한 보상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과거에도 해킹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킹 피해에 대한 기업들의 후속 대응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보도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결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규제로 전환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사이버 보험 의무 가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예스24의 단순한 해킹 사실 전달을 넘어 사건의 경과와 기업의 대응 과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경과와 과거 사례를 함께 전달해 기업의 책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현장의 혼란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니다. 예스24를 통해 공연을 예매한 이용자가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입장에 차질을 빚고, 예매 일정이 연기되는 등 관련 업계로도 영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실제 사고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보도에서는 그 영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피해 사례와 이용자의 반응도 함께 다뤘다면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5. 06. 2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0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한 <뉴스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대북전단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살포 중지를 위한 관련 부처 회의에도 나섰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

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받은 남북관계발전법 외에 다른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관련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실정법들을 살폈습니다. 현행법 확인 후,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효과적인 규제와 처벌을 위해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항공안전법 등 일부 조항의 개정도 검토합니다. 통일부는 이런 전단 살포 중단 요청이 헌법재판소의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과는 별개라고 해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위헌 판결 당시 현재가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필요성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인 첫 대북 관련 메시지로,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행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정부의 행보가 더욱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본 보도는 새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부 및 관련 부처가 살펴보겠다고 한 관련 법령에 대해 자료 화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일부의 방침이 기존의 현재 위헌 결정과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현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적받았다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언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을 함께 정리하여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에 대해 보도한 <뉴스잇>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5월에 있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에 대해 전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일 현장을 직접 다녀온 기자가 화재 직후 현장 분위기에 대해 생생하게 전했으며, 검거된 방화범에 대해 전했습니다. 방화범은 60대 남성 원 모 씨로, 범행 약 한 시간 뒤 검거됐습니다. 원씨는 범행 이유를 본인의 가정사와 관련해 불만이 있어 공론화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화재 사실을 기관사에게 바로 알리는 등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열차가 멈추고 대피하는 과정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 같은 약자들을 먼저 챙기려는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불도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 안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서 침착하게 끄는 등 신속한 대응 덕에 화재 발생 20여 분만에 불길의 모두 잡혔습니다. 대형 참사를 막는 데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전면 교체된 열차 내부 구조도 큰 몫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열차 좌석과 바닥, 그리고 전동차 벽체 등이 모두 불이 붙지 않거나 붙기 어려운 소재로 교체된 것입니다. 또한, 사건 한 달 전쯤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

왔습니다. 안전 훈련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훈련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사·관제사·역무원, 또 소방까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본 보도는 지하철 방화 사건에 대해 잘 정리하여 전했습니다. 앵커와 기자가 질의응답 식으로 내용을 전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기자의 대답을 통해 현장감이 잘 전달되었습니다. 당시 현장감 뿐 아니라, 방화범의 범행 이유, 시민들의 배려 등이 모두 담겼는데요. 특히 과거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교체된 열차의 모습을 짚어주고, 안전 훈련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도 강조되어 향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보도 말미에 언급했던 최소한의 열차 탑승 점검 절차 외에도 무인 노선 등 기관사가 부재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덧붙여졌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검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지 향후에도 지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보도한 <라이프투데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자리한 수원구치소는 바로 담장 너머로 대단지 아파트가 접해있고, 오피스텔 등 주거 시설도 있습니다. 반경 10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도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자리한 교정시설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준공돼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며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보도는 도심에 위치한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전했습니다. 수원구치소는 지어질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 지역에 지어졌으나, 도시가 확장하면서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주민들의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지역 내 갈등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연합뉴스TV의 본 보도가 지역 주민 외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해당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공론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등 정도를 전해주거나, 현재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 덧붙여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 정도를 넘어 보도에서 언급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덧붙였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도 말미에 언급한 '관계 기관과 주민들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기관과 주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마약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전국 34개 하수처리장의 시료를 채취해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

니다.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트암페타민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불법 마약성분이 검출됐 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전국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매년 검출돼 마약사범이 전국 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시화 등 외국인 근로 자가 많은 곳에서 필로폰 검출량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밀집 지역 12곳을 추가 조사했더니 이들 지역의 필로폰 사용추정량은 전국 평균 대비 141% 수준으로 이는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 경향과도 일치했습니다. 다만, 필로폰과 코카인, 엑스터시 등 주 요 불법 마약류의 전국 합계 사용추정량은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앞으로 관련 조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해 마약 사용자의 동선 파악과 이용 경로 분석 등 마약 퇴치를 위한 진화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 사는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에서도 활용 중인 조사 기법으로 마약의 예방과 관리 대책 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본 보도에서 전달한 조사 결과를 통 해 이미 우리 사회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 다. 한편,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만큼, 본 보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의 마약 정화 처리 과정 등에 대 한 취재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 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6. 29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09회 - '연합뉴스TV 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이 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 연결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키우는 새로운 불신 요소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방 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온 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강제로 자사 홈페이 지나 앱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도는 “이용자 보호 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쿠팡 측의 입장을 덧붙 였습니다. 이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조사의 배경과 함께 방통위와 쿠팡,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 달해 보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용자 불편을 다룬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실 제 이용자의 경험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시각적 자료 등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논 란이 된 '납치광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화면과 설명이 함께 제시되

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전문가의 의견이 덧붙여졌다면 이 같은 광고 방식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들이 보다 구체적으 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 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노 후 준비 수준에서 빈부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오후 1시 뉴 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준비 실태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대인관계, 건강, 여가, 재무 4개 영역에서 측정한 국민의 노후준비 수준 점수는 69.9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지난해 8~9월 전국 30~69세 성 인 3천40명을 대상으로 4개 영역의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토대로 면접 조사한 결과로, 5년 전 조사 때보다는 2.4점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영역은 건강, 재무, 대인관계, 여가 등으로 이 가운데 건강이 7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도 높아 경제수준 '상' 그룹의 노후준비 점 수는 73.4점, '중'은 70.7점, '하'는 67.8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30~60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수준 평가 결과를 전하며, 건강·재무·대인관계·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했습니다. 각 영역 별 점수와 경제력에 따른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노후 대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해당 점수가 어떤 기준과 방식 으로 산출되었는지, 또 각 영역에서 어떤 요소가 평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 족했는데, 결과만 제시해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반영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 다.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나 노후 준비 격차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시청자들이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 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와 구분이 어려운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공간 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액상형 마약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 했습니다. 일반 전자담배 기기로 투약해 거부감이 적고 주변에서 쉽게 인지하지 못하 는 점, 어디서든 투약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는 설명했 습니다. 보도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수 통계 지표를 인용해 액상 형태의 마약 압수 건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3,300여건 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마약을 바라보는 젊은 층의 시선을 언급했는데, 젊은 층에서 필로폰이 진짜 마약이 고 나머지는 가벼운 마약은 마약이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는 마약중독재활센터 관계자 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 는 환경이 더해져 마약 확산이 빨라진다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전자담배 기기를 활용한 액상형 마약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태를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유통 방식과 “필로폰만 진짜 마약”이라는 왜곡된 인식, 압수 건수 증가에 대한 통계 수치를 함께 제시해 사안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다만, 해당 마약이 전자담배 형태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일상 공간에서 주변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도에 포함되었다면 문제의 실질적 위험성을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층 사이에서 액상형 마약이 손쉽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현실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더해졌다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파악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반 침하 사고는 이제 집중호우나 장마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발생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지난 24일 뉴스투나잇의 보도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 3월에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자리는 모두 복구됐고 차량 통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옆 주유소는 운영을 중단했고 꽃집을 운영하는 상인도 출근길에 사고 현장을 지날 때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상황에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현장점검과 원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땅꺼짐 사고 현장이 복구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다뤘습니다. 특히, 차량 도로가 복구되고 차량 통행이 재개된 상황에서도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생활상의 영향을 인근 상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전달해 사고의 여파를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도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어 관리의 필요성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 경과나 복구 현황 전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난 보도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접근의 보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5년 6월 1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6월 8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6월 15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6월 22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5년 6월 29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